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4호 [무게 제25703호] 주제106(2017)년 7월 1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리만건동지, 리병철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체적로켓공정의 개척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대륙

간도 길이 전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끓끓는 행복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백두의 담력과 배짱, 사생결단의 애국헌신으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압력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켓대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러저올라 7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력무력완성을

위한 최종판문인 대륙간탄도로켓개발의 역사적대업을 이룩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고 그 모든 영광을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한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과 생사운영을 함께 하며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을 만리대공에 성공적으로 쏘올려 백두산대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움으로써 주체

조선의 자주적존엄과 강요한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영웅적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전사들이 우리 식의 대륙간탄도로켓을 개발한 투쟁정신과 투쟁분배로 최강의 전략무기, 주제탄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이, 더 빨리 개발완성하여 당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당의 권위와 조국의 존엄이 실린 주제탄의 피성을 줄기차게 올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결사보위하고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명기상을 역척같이 다져나갈 굳은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보도반

《북조선령도자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명령》, 《북조선로켓 미국의 심장부라격 가능》

세계 언론들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행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4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이트루트》블로그는 《우》는 김정일동지께서의 지도밑에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시험발사를 앞두고 모세트총총집권투쟁장군을 계속 찾으시어 긴장한 전후를 벌리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발사준비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시었다.

이제에서는 미제와의 가나긴 대결이 드러나 마지막후계선에 들어섰다고, 조선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선의 의지를 시험하는 미국에 특별히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이 기운차게 발사되었다.

수리야신문 《알 바이스》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은 핵과 탄도로켓을 힘있게 늘려놓지 않을것이며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라이선신문 《망고코스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조선이 이번에 성공시킨 대륙간탄도 미사일 은 최대정경고도 2 802km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버 933km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시험발사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미국이 《독립》에 받은 《선봉보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작은 《선봉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시고 하시었다.

베네수엘라의 인터넷신문 《엘 세클로》는 북조선이 시험발사한 《화성-14》형미사일이 엄연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하고있다. 북조선은 이번 미사일발사로 미국본토의 주요도시들에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우바의 브렌스 라퍼나통신, 이란의 파르스통신, 수비아의 사나통신, 신문들인 《알 사우라》, 《리슈린》, 《알 와탄》, 라오스통신, 인디아의 신문 《라이징 유엄》, 인터넷방송인 보이스 오브 밀리언즈, 싱가포르 신문들인 《스트레이트 타임스》, 《변경》, 《북조선 미국(독립)》 로케트 발사, 트럼프에게 보내는 강한 야옹 알 씨비아, 《알 미쓰리》 알아용, 《알 파르크》, 《알 야호람》, 브라질의 신문 《코케이우 브라질리엔세》, 인터넷홈페이지 《마르사 페르데》,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 VTV방송, 인터넷신문 《MSN》, 도이쉴란드만제연

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백두산제스조선친선협회, 에스빠나 바스크주체사상연구소, 조선인민국의 친선 및 반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이 《북조선 명도자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명령》, 《김정은명도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 지도》, 《북조선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성공 선언》, 《북조선 미국(독립)》 로케트 발사, 트럼프에게 보내는 강한 야옹 알 씨비아, 《알 미쓰리》 알아용, 《알 파르크》, 《알 야호람》, 브라질의 신문 《코케이우 브라질리엔세》, 인터넷홈페이지 《마르사 페르데》,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 VTV방송, 인터넷신문 《MSN》, 도이쉴란드만제연

《세계가 공인하는 김정일동지》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들을 특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의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월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신문 《뉴스피어 네벨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세계가 공인하는 김정일동지》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의 모습에서 세계는 20세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와 21세기 탁월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보았다 하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드림없이 이어나가고계시는데 대해 전한 의신안함들을 소개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잡지 《렐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편집한 글 《김정은명도자와 아이들》에서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주시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현출위원의

승고한 후대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들어 전하였다.

도이쉴란드만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워주시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같은 국방력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선군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현출위원의 업적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핵등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반제자주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철주야의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와 있어 조선은 위대한 주제탄과 첨단무장장비들을 그치지 갖춘 불패의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단련하여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제리안 오브 저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의 몇》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의 김정일동지라는 뜻, 그것은 함마디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다.

승고한 명도력과 결단력, 드센 배짱과 담력으로 놀라운 사변을 안아오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야말로 불가능을 모르고 언제나 백승만을 펼치시는 강대성의 상징, 희세의 위인이시이다.

그이에 대한 호모와 신뢰는 조선의 지평을 벗어나 온 세계에 퍼져가고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로씨야연방공산당 노보씨비르스크주위원회,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반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도 《김정은명도자의 창조방식》, 《백승의 명진로선》, 《민족의 영광, 찬란한 미래》 등 제목들로 불패의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단련하여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제리안 오브 저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조선중앙통신】